적용학습 인문 3 : 상식적 실재론과 표상적 실재론 <EBS변형문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어떻게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우리는 오감을 통해 직접 세계를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다. 이렇게 **물리적 대상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오감으로 대상 자체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알게 된다는 견해를 '상식적 실재론'이라 한다.**(상식적 실재론의 의미, 상식적 실재론에 ㉠이 표시된 것을 볼 때, 이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을 '상식적 실재론'과 연관 지으면서 읽어야 한다.) 상식적 실재론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실론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외부 세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하지만**(앞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전개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철학적 회의주의자들은 감각 기관을 통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지각할 수 있다는 주장을 부정**한다. 그들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라 감각 기관을 통해 지각된 현상**임을 들어,(인간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고, 감각 기관을 통해 지각된 현상만 인식할 뿐이다.) 세계가 우리의 감각과 무관한 독립적 실재로 지각될 수 없으며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감각으로 지각되는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철학적 회의주의자들의 상식적 실재론에 대한 비판)

☑ 1문단: 상식적 실재론의 의미와 이에 대한 비판

이에 대해 **로크**는 세계가 우리 마음에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는 **물리적 대상에 대한 관념들을 통해 세계와 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세계와 우리 마음 사이에 물리적 대상을 대표하는 관념을 설정함으로써 상식적 실재론의 난점(難點)을 보완하려는 입장을 '표상적 실재론'**이라 한다.(표상적 실재론의 의미 / 상식적 실재론의 단점을 보완하며 등장한 이론임을 파악해야 한다. / 표상적 실재론에 ㉡이 표시된 것을 볼 때, 이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표상적 실재론에 의하면 관념은** 물리적 **대상에 대한 경험에서 야기된 것**으로, **대상과 부분적으로 유사성을 갖는 동시에 그것을 지각하는 관찰자의 감각과도 관련**된다.(관념 = 대상에 대한 경험에서 발생 / 대상과의 유사성 + 관찰자의 감각) **예컨대** 형태, 색, 맛 등 사과에 대한 관념은 사과라는 대상의 실재와 부분적으로 유사성을 가지는 동시에 관찰자의 고유한 감각의 산물이기도 하다.('사과'에 대한 관념을 예로 들어, 표상적 실재론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고 있다.) 표상적 실재론은 철학적 회의주의자들의 논리에 의해 쉽게 부정되지 않는다.(ⓐ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부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표상적 실재론자는 동일한 사과의 색도 다른 불빛 아래에서 관찰자의 감각에 의해달리 지각될 수 있음을 용인하기 때문이다.(동일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관찰자의 감각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지각할 수 있다.)

☑ 2문단: 표상적 실재론의 의미

그렇다면 어떤 관념이 외적 대상에 의해 야기되며 어떤 관념이 우리의 감각에 의존할까?(문답 형식의 구조로 단락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로크는 '제1성질'과 '제2성질'이라는 개념을 동원**한다. '성질'은 관념들을 생기게 하는 대상의 능력이다.(성질의 의미) **제1성질**은 지각되는 조건들에 상관없이 대상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대상의 고유한 성질**이다.(제1성질의 의미) 반면 **제2성질**은 지각하는 사람에게 감각을 일으키는 것으로 색, 맛 등을 포함하며 **대상을 지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형성되는 성질**이다.(제2성질의 의미) 그래서 **제1성질은 고정불변적이고 측정 가능한 객관적 성질인 반면, 제2성질은 지각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호 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측정 불가능한 주관적 성질**이다.(제1성질과 제2성질을 비교하며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3문단: 제1성질과 제2성질의 의미와 특성

외부 세계에 관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대상의 제1성질과 제2성질에 의해 감각으로 지각된 관념들을 통해야 한다.(인간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 감각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제공하는 것은 **'단순 관념'**이다. **단순 관념은 감각적 경험을 통해 갖게 되는 관념**으로,(단순 관념의 의미) 사과를 지각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둥근 형태, 빨간색, 달콤한 맛 등의 관념들이 이에 해당한다.(단순 관념의 예) 단순 관념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의 소재가 되는 가장 원초적인 것들이라 할 수 있다.(제1성질과 제2성질은 인간의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에 의해 얻어지는 관념은 단순 관념이다.) 우리는 **단순 관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복합 관념'을 만들어 낸다.**(복합 관념의 생성 원리) 사과라는 복합 관념은 형태, 색, 맛 등의 단순 관념이 결합한 것이다.(복합 관념 생성의 예) 이렇게 **감각을 통해 얻어진 단순 관념을 결합해 무수한 복합 관념을 만들어 내는 우리 마음의 능력을 '지성(understanding)'이라 한다.**(지성의 의미 / 인간은 복합 관념을 생성할 때 지성을 사용한다.) **지성은** 비록 단순 관념들을 만들어 낼 수는 없더라도 **다양한 단순 관념들을 비교, 추상하거나 결합해 새로운 복합 관념을 만들어 낼 수 있다.**(지성 = 단순 관념 생성 ×, 복합 관념 생성 ○) 로크는 저급한 수준이나마 동물도 단순 관념들을 바탕으로 복합 관념을 만들어 내는 능력의 일부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지만, 동물은 추상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 인간에 비견할 지성은 지니지 못한다고 보았다.(동물과 인간을 비교하여 '지성'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고 있다.) 이때 **추상의 능력이란 개별적 관념을 대상이 놓인 특정 상황으로부터 분리하여 일반화하는 능력을 말한다.**(추상 능력의 의미 / 추상 능력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

☑ 4문단: 단순 관념과 복합 관념의 특성

로크에게 있어 인간의 지식은 우리가 가진 단순 관념들을 바탕으로 지성에 의해 만들어진 복합 관념들로 획득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그 확실성의 정도에 있어 언제나 개연성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표상적 실재론에 따르면 **우리의 지식은** 외부 세계와의 직접적 접촉에 의해 획득된 것이 아니라,(인간의 지식은 관념들을 바탕으로 외부 세계와의 간접적 접촉에 의해 획득된 것이다.) **마음과 외부 세계 사이에 자리 잡은 관념들을 자료로 삼는 확률적인 것이기 때문**이다.(인간의 지식이 개연성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는 이유) → 인간의 지식은 개연성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는 확률적인 것이다.

☑ 5문단: 표상적 실재론의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의 의미

[지문 어휘]

- 실재(實在):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세계
- 난점(難點): 곤란한 점 (= 문제점, 난제)
- 개연성: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

[단락별 중심내용]

❍ 1문단: 상식적 실재론의 의미와 이에 대한 비판
- 상식적 실재론: 물리적 대상이 존재하여 감각기관을 통해 대상의 고유한 특성을 알게 된다는 견해
- 비판점: 감각 기관을 통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지각할 수 있다는 주장을 부정한다. 그들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라 감각 기관을 통해 지각된 현상뿐이라고 비판한다.

❍ 2문단: 표상적 실재론의 의미
- 상식적 실재론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입장

- 물리적 대상에 대한 관념들을 통해 세계와 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관념은 물리적 대상에 대한 경험에서 야기된 것으로, 대상과 부분적 유사성을 가지며 관찰자의 감각과 관련된다.

❍ 3문단: 제1성질과 제2성질의 의미와 특성
- 제1성질: 대상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의미한다. 고정불변적, 측정 가능, 객관적인 특징이 있다.
- 제2성질: 지각하는 사람의 마음에 형성되는 성질로 지각하는 사람의 감각을 일으킨다. 사람들의 상호 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측정 불가능하며 주관적인 특징이 있다.

❍ 4문단: 단순 관념과 복합 관념의 특성
- 단순 관념: 감각적 경험을 통해 갖게 되는 관념
  예) 사과의 형태, 색, 맛 등
- 복합 관념: 단순 관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된 것
  예) 사과의 복합 관념: 형태 + 색 + 맛 등의 관념이 결합된 것
- 인간은 복합 관념을 만들어 낼 때, '지성'이라는 능력을 활용한다. 지성은 단순 관념들을 만들어 낼 수는 없으나, 복합 관념을 만들어 낼 수는 있다.

❍ 5문단: 표상적 실재론의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의 의미
표상적 실재론에 따르면 인간의 지식은 외부 세계와의 간접적 접촉에 의해 획득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지식은 확실성의 정도에 있어서 개연성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 주제: 표상적 실재론의 개념과 특성

※ 지문 확인 문제 [서술형 대비]

[단답형 문제]

1.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대상 자체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알게 된다는 견해를 _____이라 한다.

2. 철학적 회의주의자들은 상식적 실재론을 부정하며, 인간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라 _____을 통해 지각된 현상에 접촉할 뿐이라며 비판한다.

3. _____는 상식적 실재론이 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입장을 제시했다.

4. _____은 물리적 대상에 대한 관념들을 통해 세계와 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5. 표상적 실재론에 의하면 관념은 물리적 대상에 대한 _____에서 야기된 것이다.

6. 지각되는 조건들에 상관없이 대상 자체가 갖고 있는 대상의 고유한 성질을 _____이라 한다.

7. _____은 단순 관념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만들어진 관념이다.

[서술형 문제]

8. 제1성질과 제2성질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9. '지성'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서술하시오

.

10. 표상적 실재론에 따른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의 의미에 대해 서술하시오.

[연계 변형 문제]

(가)

'어떻게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우리는 오감을 통해 직접 세계를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다. 이렇게 물리적 대상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오감으로 대상 자체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알게 된다는 견해를 ㉠ '상식적 실재론'이라 한다. 상식적 실재론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실재론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외부 세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하지만 철학적 회의주의자들은 감각 기관을 통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지각할 수 있다는 주장을 부정한다. 그들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라 감각 기관을 통해 지각된 현상임을 들어, 세계가 우리의 감각과 무관한 독립적 실재로 지각될 수 없으며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감각으로 지각되는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해 로크는 세계가 우리 마음에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는 물리적 대상에 대한 관념들을 통해 세계와 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세계와 우리 마음 사이에 물리적 대상을 대표하는 관념을 설정함으로써 상식적 실재론의 난점(難點)을 보완하려는 입장을 ㉡'표상적 실재론'이라한다. 표상적 실재론에 의하면 관념은 물리적 대상에 대한경험에서 야기된 것으로, 대상과 부분적으로 유사성을 갖는 동시에 그것을 지각하는 관찰자의 감각과도 관련된다. 예컨대 형태, 색, 맛 등 사과에 대한 관념은 사과라는 대상의 실재와 부분적으로 유사성을 가지는 동시에 관찰자의 고유한 감각의 산물이기도 하다. 표상적 실재론은 철학적 회의주의자들의 논리에 의해 쉽게 부정되지 않는다. 표상적 실재론자는 동일한 사과의 색도 다른 불빛 아래에서 관찰자의 감각에 의해 달리 지각될 수 있음을 용인하기 때문이다.

(다)

그렇다면 어떤 관념이 외적 대상에 의해 야기되며 어떤 관념이 우리의 감각에 의존할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 로크는 '제1성질'과 '제2성질'이라는 개념을 동원한다. '성질'은 관념들을 생기게 하는 대상의 능력이다. 제1성질은 지각되는 조건들에 상관없이 대상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대상의 고유한 성질이다. 반면 제2성질은 지각하는 사람에게 감각을 일으키는 것으로 색, 맛 등을 포함하며 대상을 지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형성되는 성질이다. 그래서 제1성질은 고정불변적이고 측정 가능한 객관적 성질인 반면, 제2성질은 지각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호 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측정 불가능한 주관적 성질이다.

(라)

외부 세계에 관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대상의 제1성질과 제2성질에 의해 감각으로 지각된 관념들을 통해야 한다. 감각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제공하는 것은 '단순 관념'이다. 단순 관념은 감각적 경험을 통해 갖게 되는 관념으로, 사과를 지각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둥근 형태, 빨간색, 달콤한 맛 등의 관념들이 이에 해당한다. 단순 관념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의 소재가 되는 가장 원초적인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단순 관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복합 관념'을 만들어 낸다. 사과라는 복합 관념은 형태, 색, 맛 등의 단순 관념이 결합한 것이다. 이렇게 감각을 통해 얻어진 단순 관념을 결합해 무수한 복합 관념을 만들어 내는 우리 마음의 능력을 '지성(understanding)'이라 한다. 지성은 비록 단순 관념들을 만들어 낼 수는 없더라도 다양한 단순 관념들을 비교, 추상하거나 결합해 새로운 복합 관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로크는 저급한 수준이나마 동물도 단순 관념들을 바탕으로 복합 관념을 만들어 내는 능력의 일부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지만, 동물은 추상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 인간에 비견할 지성은 지니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때 추상의 능력이란 개별적 관념을 대상이 놓인 특정 상황으로부터 분리하여 일반화하는 능력을 말한다.

(마)

로크에게 있어 인간의 지식은 우리가 가진 단순 관념들을 바탕으로 지성에 의해 만들어진 복합 관념들로 획득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그 확실성의 정도에 있어 언제나

개연성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표상적 실재론에 따르면 우리의 지식은 외부 세계와의 직접적 접촉에 의해 획득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외부 세계 사이에 자리 잡은 관념들을 자료로 삼는 확률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 [1~2]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물리적 대상 X가 주체 A의 감각을 통해서는 P라는 현상으로 지각되고, 주체 B의 감각을 통해서는 P'라는 현상으로 자각된다. 이처럼 판단 주체들의 상이한 감각으로 인해 주체 A에게 나타난 현상 P와 주체 B에게 나타난 현상 P' 중 어떤 것이 X의 실제 모습을 말해 주는 것인지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지성'의 사용 여부에 따라 X에 대해 P 또는 P'로 지각하는군.
② 주체 A와 B가 감각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듯이 인간은 오감을 통해 직접 세계를 경험하고 인식하겠군.
③ <보기>의 내용은 '상식적 실재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겠군.
④ <보기>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로크의 '제2성질'의 개념을 가져다 쓸 수 있겠군.
⑤ A와 B가 대상 X에 대해 갖는 복합 관념이 달라서 현상을 인식하는 데 차이를 보이는군.

2.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식적 실재론'을 비판한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인간은 지성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은 관념을 비교, 추상,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들을 수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
② 인간의 감각 기관을 통해 외부 세계와 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외부 세계를 실재로 자각할 수 없다.
③ 인간은 개별적 관념을 대상이 놓인 특정 상황으로부터 분리하여 일반화하는 능력을 지닌다.
④ 인간은 오감을 통해 세계를 직접적으로 경험한다. 즉,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지각할 수 있다.
⑤ 인간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관찰자의 감각을 배제해야 한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어느 나라에 거주하는 ○○씨는 다른 과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지금껏 한 번도 귤과 파인애플을 접해 본 적이 없어, 귤과 파인애플이라는 과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한편 ○○씨는 집에서 개를 한 마리 기르고 있는데, 그 개는 모습이나 체취, 목소리 등을 통해 여러 사람 속에 섞여 있는 ○○씨를 알아볼 수 있다.

① ○○씨가 기르는 개는 개별적 관념을 대상이 놓인 상황으로부터 분리하여 일반화하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씨를 구분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② <보기>에서 체취, 목소리 등은 단순 관념에 해당한다.
③ ○○씨가 귤을 접한다면 색, 맛 등의 단순 관념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④ ○○씨가 귤과 파인애플을 접한다면 지성을 통해 다양한 복합 관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⑤ ○○씨가 귤과 파인애플을 접하고 나서 인식된 관념은 다른 사람들의 관념과 다를 수도 있다.

4. 이 글의 서술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여러 가지 이론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② 상반되는 이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
③ 두 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④ 구체적인 사례를 고찰하여,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해 내고 있다.
⑤ 예상되는 다른 의견을 반박하며 필자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5. 다음 중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을 감각을 통해 '단순 관념'을 제공받는다.
② 제1성질과 제2성질을 통해 얻어지는 관념은 '단순 관념'이다.
③ '복합 관념'은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어진 단순 관념들의 결합이다.
④ 대상을 지각할 때 인간이 갖게 되는 형태, 색 등은 단순 관념에 해당한다.
⑤ 동물은 단순 관념들을 비교, 추상하여 복합 관념을 만들어 내는 능력의 일부를 지녔다.

6. 다음 중 ㉠과 ㉡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과 달리 ㉠은 물리적 대상에 대한 관념을 통해 대상을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과 달리 ㉠은 감각 기관을 통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지각할 수 있다는 주장을 부정하였다.
③ ㉠과 달리 ㉡은 대상의 측정 가능한 객관적 성질을 선별하여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과 ㉡ 모두 대상의 실재를 인식하는 데 인간의 관념이 관여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과 ㉡ 모두 대상이 물리적으로 고유한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7. 밑줄 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와 유사한 것은?
① 이번 주말에 중학교 동창생들과 보기로 했다.
② 민서의 행동은 실수로 볼 수 없다.
③ 넌 그런 일을 당해 보지 않아서 내 심정을 모른다.
④ 친구들이 모두 집에 돌아갔나 보다.
⑤ 기회를 봐서 선생님께 말씀드릴 생각이다.

8.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은 시장에서 처음으로 딸기를 먹었다. 이때 딸기의 색깔을 붉었고, 맛은 새콤했다. 그리고 며칠 뒤 집에서 고추를 먹었는데 색깔은 붉었고, 맛은 매웠다. ○○은 이와 유사한 많은 경험들을 통해 다른 대상들에서 붉은 색을 보고, '붉음'이라는 관념을 추출할 때, 이것을 A라고 부른다. 이때 '붉음'의 관념은 각각의 대상들과 동반하였던 시간, 공간, 모양, 맛 등은 모두 제외시킴으로써 성립한다.

① A는 대상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측정 가능하고 객관적인 성질이다.
② A는 사람을 중심으로 상호 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측정 불가능한 주관적 성질이다.
③ 인간은 동물과 달리 A를 통해 새로운 복합 관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④ A는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의 소재가 되는 가장 원초적인 것들이다.
⑤ A는 관념들을 생기게 하는 대상의 능력을 의미한다.

※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로크에게 있어 인간의 지식은 우리가 가진 단순 관념들을 바탕으로 지성에 의해 만들어진 복합 관념들로 획득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그 확실성의 정도에 있어 언제나 개연성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표상적 실재론에 따르면 우리의 지식은 외부 세계와의 직접적 접촉에 의해 획득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외부 세계 사이에 자리 잡은 관념들을 자료로 삼는 확률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나)

이에 대해 로크는 세계가 우리 마음에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는 물리적 대상에 대한 관념들을 통해 세계와 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세계와 우리 마음 사이에 물리적 대상을 대표하는 관념을 설정함으로써 상식적 실재론의 난점(難點)을 보완하려는 입장을 ㉠'표상적 실재론'이라한다. 표상적 실재론에 의하면 관념은 물리적 대상에 대한경험에서 야기된 것으로, 대상과 부분적으로 유사성을 갖는 동시에 그것을 지각하는 관찰자의 감각과도 관련된다. 예컨대 형태, 색, 맛 등 사과에 대한 관념은 사과라는 대상의 실재와 부분적으로 유사성을 가지는 동시에 관찰자의 고유한 감각의 산물이기도 하다. 표상적 실재론은 철학적 회의주의자들의 논리에 의해 쉽게 부정되지 않는다. 표상적 실재론자는 동일한 사과의 색도 다른 불빛 아래에서 관찰자의 감각에 의해 달리 지각될 수 있음을 용인하

기 때문이다.

(다)

'어떻게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우리는 오감을 통해 직접 세계를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다. 이렇게 물리적 대상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오감으로 대상 자체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알게 된다는 견해를 '상식적 실재론'이라 한다. ㉡상식적 실재론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실재론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외부 세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하지만 철학적 회의주의자들은 감각 기관을 통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지각할 수 있다는 주장을 부정한다. 그들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라 감각 기관을 통해 지각된 현상임을 들어, 세계가 우리의 감각과 무관한 독립적 실재로 지각될 수 없으며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감각으로 지각되는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라)

외부 세계에 관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대상의 제1성질과 제2성질에 의해 감각으로 지각된 관념들을 통해야 한다. 감각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제공하는 것은 '단순 관념'이다. 단순 관념은 감각적 경험을 통해 갖게 되는 관념으로, 사과를 지각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둥근 형태, 빨간색, 달콤한 맛 등의 관념들이 이에 해당한다. 단순 관념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의 소재가 되는 가장 원초적인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단순 관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복합 관념'을 만들어 낸다. 사과라는 복합 관념은 형태, 색, 맛 등의 단순 관념이 결합한 것이다. 이렇게 감각을 통해 얻어진 단순 관념을 결합해 무수한 복합 관념을 만들어 내는 우리 마음의 능력을 '지성(understanding)'이라 한다. 지성은 비록 단순 관념들을 만들어 낼 수는 없더라도 다양한 단순 관념들을 비교, 추상하거나 결합해 새로운 복합 관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로크는 저급한 수준이나마 동물도 단순 관념들을 바탕으로 복합 관념을 만들어 내는 능력의 일부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지만, 동물은 추상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 인간에 비견할 지성은 지니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때 추상의 능력이란 개별적 관념을 대상이 놓인 특정 상황으로부터 분리하여 일반화하는 능력을 말한다.

(마)

그렇다면 어떤 관념이 외적 대상에 의해 야기되며 어떤 관념이 우리의 감각에 의존할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 로크는 '제1성질'과 '제2성질'이라는 개념을 동원한다. '성질'은 관념들을 생기게 하는 대상의 능력이다. 제1성질은 지각되는 조건들에 상관없이 대상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대상의 고유한 성질이다. 반면 제2성질은 지각하는 사람에게 감각을 일으키는 것으로 색, 맛 등을 포함하며 대상을 지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형성되는 성질이다. 그래서 제1성질은 고정불변적이고 측정 가능한 객관적 성질인 반면, 제2성질은 지각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호 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측정 불가능한 주관적 성질이다.

9. 윗글을 내용상 흐름에 맞게 배열한 것은?

① (다) → (마) → (나) → (라) → (가)
② (가) → (다) → (마) → (라) → (나)
③ (다) → (나) → (마) → (라) → (가)
④ (가) → (라) → (마) → (다) → (나)
⑤ (라) → (가) → (나) → (마) → (다)

10. 이 글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인간의 추상 능력의 예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② 인간의 감각에 의존한 관념을 설명하기 위해 로크가 적용한 개념은 무엇인가?
③ 단순 관념과 복합 관념을 설명한 예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④ 단순 관념을 결합해 복합 관념을 만들어 내는 능력은 무엇인가?
⑤ 제1성질과 제2성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11. 각 단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가): 인과 관계에 따라 대상의 의미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② (나): 대상이 등장하게 된 원인을 언급하면서 대상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③ (다): 대상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에 대한 비판도 함께 서술하고 있다.
④ (라): 상반되는 두 개의 개념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⑤ (마): 문답 형식을 취해 대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을 평가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A는 보편 개념은 공통 성질을 가진 개체에 대해 주어진 이름뿐이지 실재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물간의 유사성마저 부정하며, 이를 통해 얻어진 보편 개념은 사고에 의한 추상적 산물에 불과하다고 언급한다. A는 실재하는 것은 보편 개념을 구성하는 개체뿐이라고 주장한다.

① 인간은 오감을 통해 직접 외부 세계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대상의 실재를 인식할 수 있다.
② 복합 관념들로 획득된 지식은 개인의 추상적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③ 실재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에 의해 획득된 지식뿐이다.
④ 보편 개념을 구성하는 개체들만으로 외부 세계를 지각한다면 우리의 지식은 확실성을 지닐 수 있다.
⑤ 대상이 가진 성질은 모두 측정 가능하며, 객관적이다.

13.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다고 할 때, 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인간은 A를 기초로 하여 능동적으로 A와 다른 종류의 관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즉, A를 여러 방식으로 조합하거나 합성하여 새로운 종류의 관념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는데, 이를 B라고 한다.

① A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 갖게 되는 관념으로 형태, 색, 맛 등이 있다.
② A는 대상의 제1성질과 제2성질에 의해 감각으로 지각된다.
③ B는 A를 비교, 추상, 결합하여 만들어낼 수 있다.
④ A는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의 소재가 되는 가장 원초적인 것들이다.
⑤ 로크에게 있어 인간의 지식은 A로 획득되는 것이다.

14.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로크는 지각하는 주체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하는 성질을 A라고 했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끼는 크기, 형태 등의 물리적인 성질을 B라고 했다. 이때 B는 대상으로부터 절대 분리할 수 없다. A가 주체의 경험에 의한 것이라면, B는 물체 자체에 속하는 성질이다.

① A와 B 모두 지각하는 사람에게 감각을 일으키는 것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형성된다.
② A와 B 모두 관념들을 생기게 하는 대상의 능력이다.
③ A는 측정 불가능한 주관적 성질이며 대상의 색, 맛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④ B는 대상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고정불변적이다.
⑤ A와 B에 의해 감각으로 지각된 관념은 단순 관념이다.

15. <보기>의 A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일각에서는 로크가 주장한 A가 과연 불변하는 고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수박의 모양은 '둥긂'이어야 한다. 하지만 수박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모양이 둥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일부 학자들은 A 역시 경험에 의한 소산이라며 그 객관성을 비판한다.

① A는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의 소재가 되는 가장 원초적인 것들이다.
② A는 감각을 통해 얻어진 단순 관념들이 결합된 것이다.
③ A를 비교, 추상, 결합하여 새로운 복합 관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④ A는 지각되는 조건들에 상관없이 대상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의미하며, 측정 가능한 성질이다.
⑤ A는 지각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측정 불가능한 주관적 성질이다.

16. 다음 중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 ㉡ 모두 관념을 통해 외부 세계를 간접적으로 지각한다고 보았다.
② ㉠과 ㉡ 모두 대상을 지각하는 데 관찰자의 감각을 통한 경험을 용인하였다.
③ ㉠과 달리 ㉡은 외부 세계와 인간의 마음 사이에 물리적 대상을 대표하는 관념을 설정하였다.
④ ㉠과 달리 ㉡은 외부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식이 확실성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⑤ ㉡과 달리 ㉠은 인간이 직간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외부 세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17. 윗글을 통해 필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로크에게 있어 인간의 지식은 관념들을 자료로 삼기 때문에 개연성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② 인간의 감각기관을 활용한 지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③ '단순 관념'과 '복합 관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식에 대한 확실성을 높여야 한다.
④ 외부 세계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지식에 대한 확실성을 높여야 한다.
⑤ '상식적 실재론'과 '표상적 실재론'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이론이 대두되어야 한다.

18. 윗글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영미: 동물이 인간과 같은 지성을 지니지 못하는 건 개별적 관념을 대상이 놓인 특정 상황으로부터 분리하여 일반화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② 슬기: 바나나를 보고 노란색으로 지각하는 건 제2성질에 의한 거라고 볼 수 있어.
③ 도훈: 표상적 실재론이 철학적 회의주의자들의 논리에 쉽게 부정되지 않는 건 대상의 고유한 성질을 사전에 배제했기 때문이야.
④ 솔빈: 초콜릿을 달다고 느끼는 건 주관적인 성질이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
⑤ 성욱: '커피'라는 관념은 대상의 색, 냄새, 맛 등의 단순 관념이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답 및 해설

<지문확인 문제>

1. 상식적 실재론
2. 감각기관
3. 로크
4. 표상적 실재론
5. 경험
6. 제1성질
7. 복합 관념
8. 제1성질은 고정불변적이고 측정 가능한 객관적 성질이다. 반면 제2성질은 지각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호 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측정 불가능한 주관적 성질이다.
9. 지성은 감각을 통해 얻어진 단순 관념을 결합해 무수한 복합 관념을 만들어 내는 우리 마음의 능력이다. 지성은 단순 관념들을 만들어 낼 수는 없지만 다양한 단순 관념들을 비교, 추상, 결합하여 새로운 복합 관념을 만들어낼 수 있다.
10. 표상적 실재론에 따르면 우리의 지식은 지성에 의해 만들어진 복합 관념들로 획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실성의 정도에 있어 개연성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연계 변형 문제>

1	④	2	②	3	①	4	③	5	⑤
6	⑤	7	②	8	③	9	③	10	①
11	④	12	②	13	⑤	14	①	15	④
16	②	17	①	18	③				

1. <답> ④

동일한 물리적 대상 X에 대해서 주체 A에게는 P라는 현상으로 지각되고, 주체 B에게는 P'라는 현상으로 자각된다고 하였으므로, '제2성질'의 개념을 끌어다 쓸 수 있다. 제2성질은 대상을 지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형성되는 성질이다. 제2성질은 지각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측정 불가능한 주관적 성질이다.

<오답 풀이>

① '지성'은 단순 관념을 결합해 다양한 복합 관념을 만들어 내는 마음의 능력이다. 즉, A와 B 모두 지성을 사용하여 관념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지성의 사용 여부에 따라 대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대상에 대해 형성된 관념의 차이에서 두 사람의 지각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② '상식적 실재론'의 주장이다. 1문단을 보면 철학적 회의주의자들은 감각 기관을 통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다는 주장을 부정한다. 또한 <보기>에서도 어떤 것이 X의 실제 모습을 말해 주는 것인지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오감을 통해 직접 세계를 인식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의 내용은 '상식적 실재론'의 주장을 부정하는 내용이다. 상식적 실재론은 오감을 통해서 대상을 직접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기>에서는 어떤 것이 X의 실제 모습을 말해 주는 것인지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보기>에서 물리적 대상에 대한 A와 B의 상이한 감각으로 인해 P 또는 P'로 달리 지각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때문에 대상을 지각하는 데 '복합 관념'뿐만 아니라 '단순 관념'도 관여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단순 관념은 감각적 경험을 통해 갖게 되는 관념이다.

2. <답> ②

<보기>는 '표상적 실재론'의 입장이다. '표상적 실재론'은 인간은 물리적 대상에 대한 관념들을 통해 세계와 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관념들은 관찰자의 감각과도 관련된다. 표상적 실재론에 따르면 인간의 지식은 개인의 관념들을 자료로 외부 세계와 간접적으로 접촉하여 획득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상식적 실재론의 인간의 '지성'에 대한 견해는 지문에 드러나지 않는다.

③ 추상 능력에 대한 설명이다. 상식적 실재론의 추상 능력에 대한 견해는 지문에 드러나지 않는다.

④ 상식적 실재론이 지지하는 견해이다.

⑤ 표상적 실재론도 대상을 인식할 때 관찰자의 감각이

연관된다고 주장했다.

3. <답> ①

4문단을 보면 동물이 단순 관념을 바탕으로 복합 관념을 만들어 내는 능력의 일부를 지니고 있지만, 추상의 능력은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고 있다. 추상의 능력이란 개별적 관념을 대상이 놓인 특정 상황으로부터 분리하여 일반화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추상의 능력을 활용하여 주인을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오답 풀이>

② 체취, 목소리 등은 감각적 경험을 통해 갖게 되는 관념이므로 단순 관념에 해당한다.

③ 감각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제공하는 것은 단순 관념이다. 따라서 ○○씨가 귤을 접한다면 색, 맛 등의 단순 관념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④ 인간은 단순 관념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복합 관념'을 만들어 낸다. 이때 활용되는 능력이 '지성'이다.

⑤ 인간이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대상의 제1성질과 제2성질에 의해 감각으로 지각된 관념들을 통해야 한다. 이때 제2성질은 지각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4. <답> ③

(가) 단락에서 '상식적 실재론'에 대해 설명하고, (나) 단락에서 '표상적 실재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두 가지 이론 중 '표상적 실재론'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예시를 통해 '표상적 실재론'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이론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② '상식적 실재론'과 '표상적 실재론'에 대한 절충안은 이 글에 드러나지 않는다.

④ 이 글에서 귀납법은 쓰이지 않았다.

⑤ 이 글에서 예상되는 다른 의견을 반박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5. <답> ⑤

(라) 단락에서 동물은 추상의 능력을 지니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단순 관념을 비교, 추상하여 복합 관념을 만들어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라) 단락에서 '단순 관념'이 감각적 경험을 통해 갖게 되는 관념이라 하였다.

② (라) 단락에서 대상의 제1성질과 제2성질에 의해 감각으로 지각된다고 하였다. 이때 얻어진 감각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제공하는 것은 '단순 관념'이라고 하였으므로, 제1성질과 제2성질을 통해 얻어지는 관념이 '단순 관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라) 단락에서 단순 관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한 것이 '복합 관념'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④ (라) 단락에서 '사과'를 예로 들어 형태, 색, 맛 등이 단순 관념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6. <답> ⑤

㉠은 오감을 통해 대상 자체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지각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은 '제1성질'이 대상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설명하면서, 인간이 대상을 지각할 때 제1성질과 제2성질이 관여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두 관점 모두 대상이 지닌 고유한 물리적 특성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관념을 통해 대상을 간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진 것은 ㉡이다.

② ㉠은 감각 기관을 통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지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③ ㉡은 대상의 측정 가능한 객관적 성질인 '제1성질'과 측정 불가능한 주관적 성질인 '제2성질'에 의해 감각으로 지각된다고 보았다. 측정가능한 객관적 성질을 선별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대상의 실재를 인식하는 데 인간의 관념이 관여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다. ㉠은 대상을 지각하는 데 '관념'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았다.

7. <답> ②

ⓐ에 쓰인 '보다'는 '대상을 평가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다. 이와 문맥상 의미가 동일한 것은 ②이다.

<오답 풀이>

① 사람을 만나다.

③ 어떤 일을 경험함을 나타내는 말.

④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추측하거나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⑤ 기회, 때, 시기 따위를 살피다.

8. <답> ③

A는 '추상 능력'이다. (라) 문단에서 인간은 단순 관념들을 비교, 추상, 결합하여 새로운 복합 관념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서술한다. 또한 동물은 추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 비견할 지성은 지니지 못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제1성질에 대한 설명이다.
② 제2성질에 대한 설명이다.
④ 단순 관념에 대한 설명이다.
⑤ 성질에 대한 설명이다.

9. <답> ③

'상식적 실재론과 이에 대한 비판 → 상식적 실재론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한 표상적 실재론의 의미 → 제1성질과 제2성질의 특성 → 단순 관념과 복합 관념의 특징 → 표상적 실재론의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의 의미'의 순서대로 내용이 배열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단락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다음 단락의 첫 부분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배열해야 한다.

10. <답> ①

인간의 추상 능력의 예시는 이 글에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인간의 감각에 의존한 관념을 설명하기 위해 로크가 적용한 개념은 제1성질과 제2성질이다. (마)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사과'를 예로 들어 단순 관념과 복합 관념을 설명하고 있다. (라)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단순 관념을 결합해 복합 관념을 만들어 내는 능력은 '지성'이다. (라)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성질은 고정불변적이고 측정 가능한 객관적 성질인 반면, 제2성질은 지각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양한상호 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측정 불가능한 주관적 성질이다. (마)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 <답> ④

(라) 단락에서는 단순 관념과 복합 관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단순 관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복합 관념이 생성된다고 하였으므로, 두 개념은 상반된 개념이라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이 마음과 외부 세계 사이에 자리 잡은 관념들을 자료로 삼는 확률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연성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지식의 의미를 서술하고 있다.
② 상식적 실재론의 난점(難點)을 보완하기 위해 표상적 실재론이 등장했음을 밝히고, 표상적 실재론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③ 상식적 실재론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철학적 회의주의자들에 의한 비판도 함께 서술하고 있다.
⑤ '어떤 관념이 외적 대상에 의해 야기되며 어떤 관념이 우리의 감각에 의존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1성질, 제2성질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12. <답> ②

A는 실재론과 반대되는 입장인 '유명론'이다. <보기>에 따르면 유명론은 사물간의 유사성마저 부정한다. 이는 관념들을 통해 외부 세계와 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는 표상적 실재론의 입장을 부정하는 것이다. 표상적 실재론의 관념은 대상이 가진 부분적 유사성과 지각하는 관찰자의 감각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상적 실재론이 강조하는 '관념'을 부정하는 ②가 정답이다.

<오답 풀이>

① '상식적 실재론'의 입장이다.
③ '지성'은 복합 관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지성을 활용하여 단순 관념들을 비교, 추상, 결합하게 된다. '추상'을 부정하고 있는 <보기>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
④ 윗글과 <보기>의 내용만으로는 추론할 수 없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지식의 확실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둘 다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⑤ A의 입장에서 본 대상이 가진 성질의 특징에 대해서는 <보기>를 통해 알 수 없다.

13. <답> ⑤

A는 단순 관념이고, B는 복합 관념이다. 로크에게 있어 인간의 지식은 단순 관념들을 바탕으로 지성에 의해

만들어진 복합 관념들로 획득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단순 관념에 대한 설명이다. (라) 단락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라) 단락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대상의 제1성질과 제2성질에 의해 감각으로 지각된 관념들을 통해야 하고, 이때 가장 먼저 제공하는 것은 '단순 관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제1성질과 제2성질을 통해 단순 관념이 지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복합 관념에 대한 설명이다. (라) 단락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단순 관념에 대한 설명이다. (라) 단락을 통해 알 수 있다.

14. <답> ①

A는 제2성질이고, B는 제1성질이다. 지각하는 사람에게 감각을 일으키는 성질은 제2성질이다. 제1성질은 지각하는 조건들에 상관 없이 대상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② A와 B 모두 '성질'에 해당한다. '성질'은 관념을 생기게 하는 대상의 능력이다.

③ 제2성질에 대한 설명이다.

④ 제1성질에 대한 설명이다.

⑤ 대상은 제1성질과 제성질에 의해 감각으로 지각된다. 이때 지각된 감각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제공하는 것은 '단순 관념'이다.

15. <답> ④

'불변, 고유, 객관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A가 제1성질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기 중 제1성질에 해당하는 것은 ④이다.

<오답 풀이>

① 단순 관념에 대한 설명이다.

② 복합 관념에 대한 설명이다.

③ 단순 관념에 대한 설명이다.

⑤ 제2성질에 대한 설명이다.

16. <답> ②

표상적 실재론은 인간이 대상을 지각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관념'의 개념을 동원하였다. 이때 '관념'은 물리적 대상에 대한 경험에서 야기된 것으로, 관찰자의 감각과도 관련된다. 한편 상식적 실재론은 오감을 통해 직접 세계를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두 관점 모두 대상을 지각하는 데 인간의 감각에 의한 경험을 용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표상적 실재론에 대한 설명이다.

③ 표상적 실재론에 대한 설명이다.

④ 지문의 내용을 통해 상식적 실재론이 외부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식이 확실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⑤ 상식적 실재론에 대한 설명이다.

17. <답> ①

필자는 이 글을 통해 로크의 '표상적 실재론'에 대해 설명하고, '표상적 실재론'에서의 지식이 갖는 의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답은 ①이다.

<오답 풀이>

② 감각기관을 활용한 지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은 이 글에 드러나지 않는다.

③ '단순 관념'과 '복합 관념'에 대한 개념과 특징은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필자는 이 글에서 지식에 대한 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필자는 이 글에서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18. <답> ③

표상적 실재론은 제1성질과 제2성질의 개념을 동원하여 감각에 의존하는 관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때 제1성질은 대상의 고유한 성질이다. 즉, 표상적 실재론은 대상의 고유한 성질도 대상의 지각에 관여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답은 ③이다.

<오답 풀이>

① 동물이 인간과 같은 지성을 지니지 못하는 건 '추상'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② 제2성질은 지각하는 사람에게 감각을 일으키는 것으로 색, 맛 등을 포함한다.

④ 제2성질은 사람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호 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측정 불가능한 주관적 성질이다.

⑤ 대상에 대한 관념은 형태, 색, 맛 등의 단순 관념이 결합한 것이다.